

# “재개발 사업 비리 막는다” 지자체가 개입

### 광주시 공공지원제 확대 운영...추정분담금 시스템 등 구축 정보공개 홈페이지 개설 등 내년 시행...조합 운영 투명화 기대

광주시가 5개 자치구와 함께 지역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적극 개입하기로 했다. 도시정비사업 관련 공공지원제도 확대 운영을 통해 그동안 끊이지 않았던 재개발·재건축 비리를 차단하고, 사업 추진 전 타당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주민들에게 제공해 타당성 없는 사업은 애초 추진되지 않도록 유도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막겠다는 취지다.

광주시는 27일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공공지원제도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관련 추정분담금 시스템 구축 및 정보공개 시스템(통합 홈페이지) 구축이 핵심 내용으로, 총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내년 중 시행 예정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제6항)에 근거해 추정분담금 시스템이 구축되면, 재개발·재건축 사업 예정 대상지 주민들은 사업에 필요한 공사비는 얼마인지, 조합원별로 분담해야 할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광주시로부터 직접 제공받을 수 있다. 기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조합 추진이나 집행부가 제공하는 정보에 기초해 추진 여부가 결정되면서 경우에 따라 사업이 장기 표류하거나 애초 타당성이 없던 사업이 추진됐다가 무산되는 등 논란이 적지 않았다.

광주시는 추정분담금 시스템이 구축돼 투명한 정보 제공이 이뤄지면 타당성 없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주민들 스스로 추진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지역 내에서 추진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각종 정보를 망라해 공개하는 통합 홈페이지도 만들기로 했다. 광주에서 추진 중인 43개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관련 정보는 내년 구축 예정인 통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관련법에 따라 광주시는 개별 조합 집행부가 의무적으로 밝힌 총 사업비, 건설 규모, 공사 기간, 조합원별 분담금액, 각종 용역비 등 경비 지출 내용 등을 홈페이지에 담게 된다. 광주시는 그간 사업 관련 정보가 조합 집행부, 조합원 사이 폐쇄적으로 전달됐던 것과 달리 시를 통해 모두에게 공개되면서 조합 운영이 투명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광주시는 조합 추진위 구성을 위한 업무 지원, 정비사업전문 관리사업자(정비업체) 선정 지원, 설계사 및 시공자 선정 지원, 세입자 주거 및 이주 대책 수립

지원 등 재건축·재개발 관련 사업 전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지원제도 확대운영이 본격화되면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 집행부의 경우 개발사업 이권 확보에 장애물로, 정비업체의 경우 행정기관의 불필요한 간섭으로 여기고 반발하거나 협조를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되기 때문이다.

장재만 광주시 도시재생과장은 “제도 확대 운영 전 재건축·재개발 조합장 및 각 구청 담당자와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열고 의견 수렴을 해 불필요한 오해나 시행착오를 줄일 계획”이라며 “그간 사업 내용이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 사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폐쇄적으로 공유되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이 추진된 점을 감안하면, 관련 정보 공개만으로도 적잖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 세월호 화물 1228t 과적 확인 철근 410t도 실려...제주 해군기지로 운반

### 특조위 첫 진상규명보고서 채택

세월호가 출항 당시 승인된 화물 적재량의 두 배 이상을 싣고 출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는 제주 해군기지로 운반된 것으로 드러났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27일 진상규명조사보고서를 내고 “세월호 출항 시 화물 2215t이 실려 있었다”며 “세월호가 실을 수 있는 최대 화물 무게인 987t보다 1228t을 더 적재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이날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전위원회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세월호 도입 후 침몰까지 모든 항해 시 화물량 및 무게에 관한 조사’의 건’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보고서는 특조위가 채택한 첫 번째 진상규명조사 보고서다.

세월호 선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작성된 보고서 내용을 보면 출항할 때 세월호에 실린 화물은 총 2215t이다. 최대 987t의 화물 적재를 승인받은 세월호에 1228t의 화물이 더 실린 셈이다.

특조위는 세월호 화물중에 제주 해군기지로 운반되는 철근이 있었다는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장과 관련, “410t의 철근이 실려 있었으며, 이중 일부가 제주 해군기지로 가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파악한 286t은 124t을 누락한 수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는 업체 간에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관련된 사안을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세월호가 전복된 시점과 원인은 물론 화물의 적체 위치와 고박 상태가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조위는 현역 국회의원 1명을 포함해 2명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특조위가 고발 조치하기로 한 2명은 새누리당 소속 현역의원고 전직 방송사인원 A씨로, 세월호 사고 당시 일부 방송보도에 간섭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중국산 짝퉁 화장품

### 2억대 유통 2명 입건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중국산 짝퉁 화장품을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유모(34)씨와 홍모(35)씨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1월부터 최근까지 2억 2500만원 상당의 중국산 짝퉁 화장품을 중국에서 들여와 국내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 업자로부터 해외의 15개 유명상표를 도용한 짝퉁 화장품을 개당 1만~3만원을 주고 구입, 시중 가격보다 50~60% 싼 값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보관 중인 위조 상품 1056점(정품 시가 1억30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과 블로그에 지인을 판매자로 등록한 뒤 아이디를 수시로 바꿔가며 단속을 피해왔다”며 “인터넷 모니터링을 강화해 짝퉁 상품 유통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원전 신규 건설 반대” 핵없는세상 광주전남행동은 27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 원전 건설을 결사 반대한다”며 최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허가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강하게 규탄했다. 신한올 1·2호기 건설 허가 이후 4년6개월만에 신고리 5·6호기 신규 건설 허가됨에 따라 국내 원전은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을 포함해 모두 30기로 늘어나게 됐다.

핵없는세상 광주전남행동은 27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 원전 건설을 결사 반대한다”며 최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허가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강하게 규탄했다. 신한올 1·2호기 건설 허가 이후 4년6개월만에 신고리 5·6호기 신규 건설 허가됨에 따라 국내 원전은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을 포함해 모두 30기로 늘어나게 됐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오피스텔 중복사기’ 성과없는 수사

### 전담팀 꾸리기도 은닉 자금·신탁사 공모 여부 못밝혀

### 광주서부경찰, 검찰 송치

광주 최대 주택 분양사기로 알려진 농성동 골드힐스타워 분양사기단의 몸통 격인 시행사 대표가 27일 검찰에 송치되면서 경찰 수사가 마무리 절차에 접어들고 있다. 경찰이 10여명의 전담 수사팀을 꾸리기도 신탁사 공모 여부나 은닉 자금 존재를 밝혀내지 못하면서 핵심 의혹 규명은 검찰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광주서부경찰은 농성동 오피스텔 중복 분양 사기를 주도한 지앤디도시개발 대표 박모(56)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씨는 시행사 임직원, 공인중개사, 브로커 등과 짜고 농성동에 신축한 골드힐

스타워 오피스텔을 534명에게 중복 분양해 38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변 격인 박씨를 이날 송치한 데 이어 나머지 시행사 임직원, 공인중개사 등은 조만간 혐의를 확정해 검찰에 넘기고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애초 전담 수사팀을 꾸려 대대적인 수사를 예고한 경찰로서는 도피행각에 지쳐 제발로 자수를 택한 박씨를 검찰에 넘긴 것의 의의가 한성으로 넘어가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편취 금액 중 상당액은 채무를 갚는데 쓰인 것으로 보이고 신탁사 공모 여부 역시 피해자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이어서 혐의를 확정짓거나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 전교조-교육부 교원 성과급 충돌 예고

### “올해도 균등분배” “재분배 땀 최고 파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부의 교원 성과급 차등지급 확대 방침에 반발해 올해도 성과급 균등분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상여금 재분배에 대해 최고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돌이 예

고된다.

전교조는 27일 정부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담은 교사 2867명의 의견서를 모아 교육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균등

분배는 성과상여금을 적법하게 받은 뒤 처분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처벌하겠다는 것은 교사의 직무 범위를 넘어 사적재산의 처분행위까지 개입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전교조는 또 “성과급이 조만간 지급되면 현장교사들과 함께 균등분배를 실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교사들의 개인성과급 차등지급률을 기존의 최소 50%에서 올해 7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성과급) 지급지침을 내려보내는

한편, 성과상여금을 부정 지급 받을 경우 파면까지 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과상여금 부정지급에는 답답이나 몰아주기로 성과상여금을 받거나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상관 없이 배분하는 행위, 상여금을 재분배하는 행위 등을 포함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임 회장단도 앞서 교사들의 성과급 차등지급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연합뉴스

**신축 4층 상가원룸 매매**  
전대정문 모아 A.P.T 후문 코너자리

신축 상가원룸 / 3면 대리석 시공 / 코너자리

- 1층 (커피숍)
- 2층~3층 (원룸 6개, 투룸2개)
- 4층 (주택) 35평
- 화장실2개, 방3개, 다용도실

★ 4층(주택) 거주 하면서 월수익 360만!!

▣ 매가 → 6억 8천만 (용1억5천)

010-6670-9800    010-7384-7800

**근린상가 (오피스텔) 매매**  
(소액투자 안정된 월세 노후대비하세요~!!)

- ▣ 동구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 6층 (45평) 울수리 천변로 전망 좋음
  - 보증금 -1,000만, 월세 60만(용 5천) → 매가 1억 4천만
- ▣ 서구 쌍충동 원룸 (오피스텔형)
  - 2층 (11평) 운천역 1번출구에서 3분거리
  - 보증금 200만 월 30만 (용 1천)
  - (전세값으로 내집마련) → 매가 3천 5백만
- ▣ 상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 6층 (23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역
  - 보증금 500만, 월세 45만 (용 1천 6백만) → 매가 8천 500만
- ▣ 상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 6층 (19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역
  - 보증금 500만, 월 42만 (전세 2천5백만) → 매가 7천 500만
- ▣ 전남 광양 광명동 상아 A.P.T
  - (15평) 12층 전망 좋음, 주변 골프장, 아파트 밀집지역
  - 보증금 200만, 월 25만 (전세 2천5백만 가능) → 매가 3천 5백만

010-6834-4800    010-6832-9700

**법률 경매**  
(특수물건 추천)

- ▣ 북구 연제동 (상가주택)
  - 토 84평, 건 155평
  - 새한 아파트, 아파트 밀집지역
  - ▣ 감평가 5억 2천 → 최저가 3억 6천
- ▣ 서구 양동 (숙박시설)
  - 토지 174평, 건물 424평
  - 1층 (상가 2칸) 2층~5층 (모텔 룸)
  - 월수익 1,000만 예상
  - ▣ 감평가 10억 → 최저가 4억8천
- ▣ 장성 삼서 (3층 상가 건물)
  - 토 367평, 건 990평
  - 1층(식당)2층(사무실) 2층~3층 (주차장)
  - 상무대 아파트 앞, 식당 밀집지역
  - ▣ 감평가 15억 → 최저가 4억 3천
- ▣ 장성 삼서 (의료시설)
  - 토 3422평, 건1734평
  - 상무대 입구, 병원 직영 최적 합
  - 전 요양병원 운영
  - ▣ 감평가 48억 → 최저가 22억
- ▣ 동구 금남로 5가 (3층상가건물)
  - 토 17평, 건 250평 (6차선 도로점)
  - 1층~2층 (상가및사무실)
  - 주차원비, 금남로 4가, 5가역 2분거리
  - ▣ 감평가 21억 → 최저가 21억
- ▣ 북구 풍항동 (원룸)
  - 토 51평, 건 109평
  - 1층 ~ 3층 (원룸 12개)
  - 광주교육대 분거리, 코너자리
  - ▣ 감평가 3억 → 최저가 3억

062-511-7800

**경매교육**  
경매 이제는 대중화시대!!

실전 교육 듣고 바로 수익창출 가능

- ▣ 매주 수요일 (오전)
- ▣ 입학부대 임대, 매매, 개발기회까지 (원스톱 강의)

☆ 경매 실전 교육 ☆

바로 실전으로 수익창출 하실분!!

특수물건, 유채권, 가정법원 경매신청 등 실제 경험, 가장 중요한 실무교육 합니다.

(주)대신경매 직원구합니다.

부동산, 경매 배우실분, 부동산 자격증으로신분 부동산 경매 관심 있으신분 가족처럼 일하실분 환영합니다.

010-6670-9800